

대학생을 위한 ‘회복적정의’ 교과목 개발 사례

김세광 (고신대학교)

I. 들어가며 : 단순함을 넘어서는 용기

교육법 제 2조를 보면 대학교육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학술의 심오한 이론·방법의 교수·연구 및 지도적 인격 도야이다.” 대학교육을 통해 다양한 이론과 방법을 습득하고 인격적인 성장을 도모하는 것이 대학교육의 목적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배움과 인격적인 성장을 위해 가장 우선시해야 할 영역은 사고력의 개발이다. 사고력은 ‘세상에 존재하는 현상, 사건, 상황, 문제에 대한 객관적 보고나 진술로 성격상 누가 보아도 동일한 사실적 주장과 신념, 가치, 사실 자체의 해석 등의 자신의 주관적 가치가 투영된 의견적 주장을 구분하는 것이며, 또한 비판적 사고 능력을 타당하고 충분한 근거로 사용할 줄 아는 능력’이다.¹⁾ 즉, 통합적인 사고력은 참된 배움과 인격적 성장을 위한 기초적 힘이다. 하지만 현대 사회의 ‘단순사고’의 경향성은 과연 대학교육이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는가라는 의구심을 들게 한다. ‘단순사고’에 길들여진 현대인들의 일상과 사고방식은 대학교육과 같은 영향력 있는 교육집단이 그런 교육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Scott Peck, 1997, 2004: 27).

급변하는 21세기의 시대적 상황 속에서 최근 국내 대학들은 대학생들이 주도적인 삶의 자세로 보다 나은 미래를 창조하고 사회 변화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해왔다(김정현·이성훈, 2004:64). 21세기 국제화, 지식정보화시대에 대학은 교양교육의 패러다임의 전환과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교육을 요구받고 있으며, 대학교육에서 교양교육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다(이정기, 2014:53).

이러한 시대적,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킬 만한 대학 교양교과목 개발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 같은 필요성에 응답하고자 본 연구는 단순한 사고에 대항하고, 고정관념을 넘어서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회복적 정의’라는 주제로 대학생을 위한 교양 교과목을 개발하고 실천하고자 한다.²⁾ 회복적 정의의 과정과 잠재력은 개인적 수준의 변화를 넘어 지역 사회와 사회적 수준에서 영향력을 끼친다. 학자마다 조금씩은 다른 개념으로 정의 되고 있지만 회복적 정의의 할아버지지라 불리는 하워드제어의 간결하고 분명한 개념으로 정리해 보면 ‘범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과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이며, 피해의 복구와 범죄로 인해 발생한 손상을 회복시키는 것’이다. 또한 자발적인 책임의 과정을 통해 ‘올바르게 하는 것’이 회복적 정의의 목적이다. 이를 통해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과정이다(Zehr, 1995/2005, 2002 / Toews, 2012: 7. 재인용).

1) <http://www.kapi.co.kr/jido/jido3.asp> (한국행동심리연구소)

2) Scott Peck(1997/2004: 26~66)의 1부 ‘단순함에 대한 저항운동’을 참고함

본 연구에서는 회복적 정의를 Zehr(2005/ 2010)의 “Changing Lenses”³⁾의 개념으로 보고자 한다. 기존의 렌즈에서 다른 패러다임의 렌즈로 바꾸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사법이나 범죄 상황, 인권, 정치 분야에서 거론되고 있는 ‘정의(定意)’의 렌즈를 인간이 실존하기 위해 소속된 공동체 속에서 발생하는 존재 자체적 갈등과 대인관계의 갈등에 관한 회복과 치유 그리고 변혁을 위한 패러다임의 렌즈로 보고자 한다. 단순히 기존의 전통적인 정의가 익숙하기 때문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단순함을 넘어서 자신과 타인에 대한 고정관념을 벗어나는 패러다임의 렌즈로 바꾸는 것이 본 연구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회복적 정의’ 교과목의 주된 내용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그저 해오던 방식에 대한 문제의식이나 비판 없이 단순하게 생각해 왔던 현재 사법적정의 패러다임을 넘어 ‘회복적정의’의 패러다임으로 사고할 줄 아는 역량을 함양하고, 일상의 실제적 갈등을 해결 할 수 있는 이론과 실천을 융합하는 대학교양과목으로서 ‘회복적정의’ 교과목을 개발하는 사례 연구다.

연구 방법은 회복적 정의 교과를 개발하기 위한 이론적 원리를 바탕으로 교육설계하여 회복적 정의 수업을 실행하고 사례를 분석한 것이다. 분석을 위해 교수-학습 활동과 기타 설계 요소를 검증하는 순환의 과정이며, 학습활동이 강의 공간에서 어떤 상호작용 과정으로 나타나며 학습자의 참여와 교수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무엇을 배우고 있는지 실행과정을 분석하는 것이다(Akker 외, 2006/2013: 46-50).

수업실행은 2014년 2학기 A대학교 교양선택과목으로 “회복적 정의의 이해와 실제”를 수강한 54명의 학습자들과 교수자와의 상호작용 과정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본 연구는 수업의 실행의 중간단계에서 정리된 내용이므로 아직 끝나지 않은 연구이다. 연구의 최종결과 보다는 실행을 위한 준비 단계인 대학의 ‘회복적 정의’라는 교양 교과목을 개발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연구의 목적으로 향하는 질문들

1) 왜 회복적 정의가 대학교양과목으로 필요한가? : 이 질문은 서론의 문제제기와 연구의 필요성을 통해 제시하였다.

2) 어떻게 하면 회복적 정의를 회복적으로 가르칠 수 있을 것인가? : 회복적 정의는 기존의 응보적 가르침 혹은 전통적인 방식과 다르게 가르쳐야 한다. 이를 위해 회복적 가르침의 원리를 제시하고자 한다.

3) 회복적 정의 수업 진행과정의 교육적 의미와 효과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 수업의 실제 실행과 학습공동체가 구성되어 가는 과정을 통해 의미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3) Howard Zehr(2005/2010)의 한국어판 “회복적 정의란 무엇인가?”의 원문 제목임.

II. 회복적 정의 교과목 개발의 원리

: 회복적 정의를 가르치기 위한 회복적 가르침(Restorative Teaching)

대학에서의 교육은 협동을 강조한다고 하면서도 개별성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학구적인 능력을 강조하는 법학이나 철학의 분야는 더욱 전통적인 방식을 고수한다. 하지만 회복적 정의 교육은 다른 방식의 교육방법이 요구된다. 회복적 정의는 학생들이 직접적으로 실천해야 하는 경험을 다루기 때문이다(Gilbert 외, 2013:46).

Riestedberg(2007: Gilbert 외 2013:48,재인용)는 회복적 정의를 가르치기 위한 철학으로 문제해결을 위한 접근에 강조를 두고 있다. 학생들의 사회적, 감정적 뿐 만 아니라 물리적, 지적 요구와 인식의 참여를 필요로 한다. 또한 학습조직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목적과 규칙에 합의하여 안전한 배움의 공간을 만들어야 함을 강조한다. 회복적 정의를 가르치기 위한 회복적 가르침(Restorative Teaching)의 원리로서 회복적 정의 교과목의 개발에 활용하고자 한다.

1. 회복적 정의

회복적 정의를 가르치기 위해서는 회복적 정의에 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먼저 현재 실현되고 있는 응보적 정의관의 개념을 정리해 보는 것이 회복적 정의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응보주의적 정의관은 잘못을 한 그 사람에게 잘못된 만큼 처벌을 돌려주는 것이다. 응보적 정의가 추구하는 목적은 범죄로 인해 발생한 불평등을 조정하여 균형을 이루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정의를 실현하고자 한다. 피해자가 입은 손해나 고통을 동일한 정도로 가해자에게 되돌려 줌으로써 윤리적 균형을 회복시키려는 것이다(이종원, 2011). 이러한 정의의 실현은 단순하게 습득해 온 방식이기 때문에 새로운 인식의 영역이 아니다. 하지만 이 같은 과정에서 실제적 피해 당사자는 사법과정에서 배제되고 피해자의 요구와 회복은 부차적이 된다. 응보적 사법에서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의 중요성을 배제하기 때문에 사법절차에서는 양자의 관계적 화해가 추구되지 않는다(Zehr, 1990/2011: 19).

회복적 정의(Restorative justice)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정의는 ‘범죄에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관계와 해악을 치유할 목적으로 함께 모여 논의하는 것’이다(김은경 · 이호중, 2006: 173). 하워드제어(1990/2011:207)는 회복적 정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범죄는 사람과 관계에 대한 침해이다. 범죄는 잘못을 바로잡을 의무를 창출한다. 사법은 피해자, 가해자, 공동체가 잘못을 시정하고, 화해와 안전을 촉진하는 해결책을 찾는 것이다.” 이 같은 회복적 정의에 대한 관점을 통해 회복적 정의의 방향성을 모색해보면, 전통적인 처벌적·응보적 형사사법체계가 지닌 비효율성과 적대성 및 피해자의 필요와 요구에 대한 배려부족 등에 반론을 제기하며, 대립적 소송과정을 통한 강제적 해결책의 ‘부과(imposing)’보다는 당사자들 상호의 이해와 합의에 근거한 문제의 ‘해결(solving)’과 ‘치유(healing)’에 목적을 두고 있다(Zeher, 1990/2011: 김은경, 2007: 1170, 이종원, 2011: 888).

회복적 정의의 최대 관심은 관계성에 있다. “관계”와 회복적 정의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 준다. 또한 정의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피해자, 가해자, 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노력이 요구됨을 볼 수 있다. 회복적 정의와 관련된 관계의 구조를 보면, 회복적 정의 조정자 혹은 단체를 중심으로 피해자와 피해자와 관련된 사람들, 가해자와 가해자와 관련된 사람들, 그리고 지역공동체와 연결이 되어 있다. 정의의 회복적 실천은 단순한 관계의 구조가 아닌 ‘공동체적 관계 구조’라고 볼 수 있다(서정기, 2011: 24). 회복적 정의를 배우기 위해서는 ‘공동체적 참여’를 통해 관계성을 경험하고 상호작용의 역동성을 체험하는 과정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2. 회복적 생활교육

가르침과 배움의 과정은 일반적으로 교사와 학생이라는 관계를 통해 일어난다. 보통 교사의 위치는 학생보다 우위에 있다. 보다 권위를 갖고 있다. 권위는 학습자를 보호할 수도 있고 학습자를 위협할 수도 있다. 회복적 정의의 패러다임으로 교육을 실천한다는 것의 의미는 회복적 정의에서 초점을 두고 있는 관계성의 회복에 있다. 교사와 학습자, 학습자와 학습자 간의 관계적 회복과 그들의 공간을 안전하게 유지하는 것이다.

이같은 회복적 정의의 패러다임으로 교육에 적용하기 위한 노력은 ‘회복적 생활교육’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권위적이고 응보적인 훈육 문화는 전통사회에서는 별 문제없이 적용되어 왔다. 이제는 탈권위적이고 다양성과 자율성의 가치가 중요시 되는 시대이다. 응보적 지도 방식은 더 이상 수용되지 않는 패러다임이다. 이제는 훈육의 방식에 대한 전면적인 반성과 대안이 필요하다(박숙영, 2012: 10). 즉, 일상의 교육에서 회복적 정의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회복적 생활교육’을 통해 가능하다. 회복적 생활지도 혹은 교육이란 “잘못된 행동을 방지하고 차단하려는 기존 학생생활지도 방법에 더해 삶을 보다 책임감 있게 살도록 가르치는 방식이다(Amstutz and Mullet, 2005/2011, 28).” 한마디로 정리하면, ‘회복적 정의의 가치와 신념에 기초한 생활지도를 의미’한다.

회복적 생활교육에서의 배움의 방식은 비폭력적 방식이다. 비폭력은 상대를 패퇴시키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적대자 안에 있는 선함의 가능성을 끌어와 선을 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두려움과 강제를 통한 방식이 아닌, 적극적인 경청과 수용의 방식으로 자발적 동기를 이끌며, 관계적 배움의 방식이다. 즉, 힘을 빼앗는 방식이 아닌, 힘을 주는 방식이다.

회복적 생활교육은 잘못된 것에 대한 반성과 잘못된 행동을 다시 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과 타인을 존중하고 책임 있는 행동을 하는 학생으로 성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회복적 생활교육에서 “잘못”이란 ‘관계를 훼손시키는 것’으로 보고 공동체 구성원이 피해 회복의 과정에 참여하도록 하여 개인과 공동체 모두가 성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피해자의 삶의 정황과 맥락에 근거한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피해의 회복을 추구하고, 사건으로 인한 당사자뿐 아니라 이로 영향을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해결과정에 참여하며, 자발적 참여를 통해 당사자가 책임 있는 결정을 내리고 수행하는 과정을 거친다.

회복적 생활교육에서의 교사는 지배자 모델이 아닌 파트너 모델로 답을 주며 가르치기보다는 통찰과 경험의 나눔을 가능하게 하는 촉진시키는 자의 역할, 갈등상황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자에서 관계를 회복시키는 평화적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한다. 그리고 교사 권한 강화의 의미는 학생을 징계하는 강제력 강화가 아닌, 공감과 평화의 소통능력 강화로써 이해한다. 교사는 학습공동체 구성원으로서 학생이 차지하는 영역을 대신하지 않으며, 학습자의 공간과 영역을 존중한다.

회복적 생활교육에서는 갈등에 대해 회피하거나 공격하지 않고, 갈등을 환영하고 드러내어 성장과 배움의 기회로 삼는다. 갈등은 잠재된 문제를 드러내고 해결하는 것을 통해 건설적인 대안을 찾을 수 있는 기회이므로 교육 현장에서의 갈등은 대립과 분열의 위험요소가 아니라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규범을 익히고 책임을 배우며 서로가 협력하여 건강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공동체적 문제해결 역량을 기르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 갈등 자체는 파괴적이거나 부정적이지 않으며 동시에 긍정적인 것도 아닌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이해된다. 사회가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 관계의 단절과 사회적 손실 및 피해를 발생시키는 부정적 결과를 가져 오기도 하고 반대로 사회발전을 이루는 변화의 기회가 되기도 한다(박숙영, 2012).

앞서 회복적 정의의 개념에서부터 함께 회복적 생활교육의 원칙에는 관계가 공동체 형성의 중심이

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또한 관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잘못된 행동과 피해를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고안하고, 단순히 규범을 어긴 부분이 아니라 피해가 발생한 부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피해자에게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도와주며, 공동으로 참여하는 문제 해결방식을 활용해야 할 것이다. 변화와 성장이 가능하도록 힘을 실어 주며, 책임감을 키우는 방식 등 회복적 정의에 기초한 생활교육은 다양하다(Amstutz & Mullet, 2005/2011).

회복적 생활교육의 원리로부터 회복적 가르침의 원리를 추출해 낼 수 있다. 먼저 교사의 역할은 촉진자, 안내자의 역할이다. 또한 배움의 방식은 비폭력적인 방식으로 교사나 학습자 혹은 학습자와 학습자 간의 비폭력대화와 행동이 전제 되어야 할 것이다. 교육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긍정적으로 전환시켜 공동체 통합을 위해 갈등을 활용한다. 학습공동체를 형성하고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회복적 생활교육의 원리로부터 유추한 회복적 가르침의 방식이다.

3. 경험학습의 원리

경험은 관념적 아이디어나 추상적 개념을 탈 맥락화 시킨 상태에서 조합, 분류, 비교, 대조 정리하는 활동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화동이 아니라 구체적인 상황적 맥락을 배경으로 이루어지는 실행과정이자 그 과정과 결과에 대한 성찰과 평가활동을 포함하고 있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경험학습에서 경험 혹은 실천은 경험을 통해서 적용될 아이디어, 통찰력, 특정한 해결대안 등이 적용될 특정한 맥락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다(유영만, 2009). 특정한 맥락의 제공자는 학습자들이다. 학습자들의 개별적인 맥락을 학습의 과정에서 활용하고 각자의 고유성을 인정하는 학습활동이다. 즉, 학습자들의 경험을 의식적으로 적용하고 시도하는 학습과정을 경험학습이라고 할 수 있다. 경험학습은 참가자들의 경험을 학습과정에 통합하기 때문이다. 참가자들을 자발적 참여자로 유도하며, 자신의 생각과 느낌 그리고 신체적, 감성적, 정신적, 사회적인 존재로서 표현 할 수 있는 감각을 총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끌어 내는 것이 경험학습이다(권일남 외, 2010).

경험학습에 참가한 학습자들은 그들이 무엇을 경험하고 성취 하였는지 반성의 시간이 필요하다. 또한 그들은 무엇을 배웠고 이 과정을 통해 미래 상황에서 적용해 볼 수 있는 시간이 필요 한다. 이 과정을 그림으로 보면 그림 1.과 같다(Ted Huddleston & David Kerr, 2006: 109). 이처럼 경험학습 순환과정의 근본적인 요소는 ‘반성’이다. 교육활동이나 경험은 반성에 기초한 배움을 자극시키는 것이다.



[그림 1] 경험학습의 순환과정(Ted & David, 2006:109)

4. 창의적 교수법의 원리

본 연구에서 교수의 대상이 되는 학습자들은 대학생이다. 후기청소년기로서 청소년지도의 원리를 기반으로 창의적 교수법의 원리를 적용하고자 한다. 먼저 청소년지도의 원리는 다음과 같다(Konopka; 한상철 외, 2001 :재인용).

첫째, 개별성의 원리이다. 청소년들의 특성과 다양한 개인차를 인정하고 수용 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과 지도 방법이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자율성과 창의성의 원리이다. 청소년은 발달적 특성상 기성세대와 사회관습에 반항하고자 하는 발달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의 과정에서 청소년들의 다양한 아이디어와 자유로운 사고활동이 보장 되어야 한다.

셋째, 전인성의 원리이다. 청소년지도는 청소년들의 전인적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 즉, 청소년을 한 사람의 완전한 인격체로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러므로 인지적 교육과 동시에 정의적, 기능적 교육이 함께 실시되어야 한다.

넷째, 체험성의 원리이다. 청소년은 정적이면서도 동적인 존재이다. 특히 청소년지도는 이론적 방법보다 활동적이며 체험적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것은 수련활동의 의미와 동일한 맥락이다.

다섯째, 동기유발의 원리이다. 청소년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이루어지는 것이 진정한 청소년 지도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청소년들의 동기유발을 위해서는 청소년들의 흥미를 유발 할 수 있는 교육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청소년지도의 원리에 충실하기 위해서 창의적 교수방법을 본 프로그램의 중요한 지도방법이자 프로그램 교수방법의 하나로 제시하고자 한다.

창의적 교수방법은 “Instructor-led, Participants-centered: 강사의 지도아래 참가자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교육 개념이다. 이것은 교육효과를 극대화하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Bob pike, 2003:13). 이것은 하나의 교육 방법이나 프로그램 지도방식이라기보다 교육에 대한 관점, 즉 패러다임이라 할 수 있다. 학습자들 혹은 참가자들을 교육내용의 주제로 인정하고 능동적으로 참여하며 체험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갈 수 있는 방식이다(김세광, 2013).

밥 파이크의 창의적 교수법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Bob pike, 2003:37-39).

창의적 교수법을 함축하면 ‘강사의 지도를 따르는 학습자 혹은 참가자 중심의 교수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학습자들은 협력하고 서로 돕고, 가르치고, 코칭하면서 배울 수 있다. 인식적 영역에서는 지식습득을 감정적 영역에서는 감정이나 태도의 변화를 정신운동영역에서는 기술습득을 대인관계 영역에서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향상을 가져 온다. 즉, 전인적인 변화의 관점에서 진행되는 교수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다양한 방법의 강의 방법을 통해 활기찬 강의를 지속시켜 주는 다양함을 추구한다. 이처럼 다양한 방법은 습득하고자 하는 내용을 여러 번 복습 할 수 있도록 한다. 이것은 학습한 내용을 장기기억으로 저장시켜 주고 지루함을 주지 않고 복습할 수 있게 한다. 무엇보다 학습자들의 경험을 존중하며 소그룹을 통해 참여를 촉진하고, 자신감을 증진시키고, 책임감을 형성하게 한다. 실제로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실행 계획을 포함하고 있으며 교육의 현장 뿐 아니라 삶에서 적용이 가능한 방법이다. 따라서 학습자들이 좋은 성과를 내도록 도와주는데 목적을 두고 있는 현실적용을 강조한 방식이다.

창의적 교수법은 무엇보다 협동학습을 도모하고 최선의 결과물과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협동적 과정이다.

즉, 회복적 정의의 패러다임인 공동체 참여를 위한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경험학습의 원리·창의적 교수법의 원리·회복적 가르침의 원리를 비교하면 < 표1. > 과 같다.

	경험학습의 원칙	창의적교수법의 원리	회복적 가르침의 원리
학습기회	학생들에게 내용을 다룰 수 있는 기회제공	학습자들에게 학습의 능동적 참여를 유도함	학습자들의 능동적인 참여와 동등한 기회
학습성취	행동을 수행함으로써 만족을 얻음	직접 경험을 수행하도록 함	직접경험과 공동체의 만족
학습내용의 범위	학생의 발전 가능성의 범위를 고려	학습자의 학습효과를 극대화시키기	회복적정의의 인식적패러다임과 실천적 영역
학습자들의 경험 활용	개별적인 경험들이 사용 됨	학습자들의 풍부한 경험을 활용함 : 협동적 과정	학습자의 개별성과 협동성을 함께 존중하는 과정
학습목표	다양한 교육목표를 창출함	실행을 통한 다음 목표 설정	인식의 전환을 통해 목표행동을 실천함

< 표1. > 경험학습의 원리·창의적 교수법의 원리·회복적 가르침의 원리

* 출처 : 김세광(2011: 19), '청소년역량 개발을 위한 창의적 교수법 실행연구' : 회복적 정의와 관련하여 재구성함.

4. 블랜디드러닝과 융합의 원리

우리나라가 디지털 미디어 기술에서 세계 최고의 국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면, 청소년을 보는 관점은 물론, 청소년정책과 실천의 모든 영역에서 종전과 다른 혁신적 접근이 필요함은 말해 준다(천정웅, 2010). '소셜 미디어는 개방, 참여, 공유의 가치로 요약되는 웹 2.0시대의 도래에 따라 소셜 네트워크의 기반 위에서 개인의 생각이나 의견, 경험, 정보 등을 서로 공유하고 타인과의 관계를 생성 또는 확장시킬 수 있는 개방화된 온라인 플랫폼을 의미한다'⁴⁾ 소셜 미디어는 양방향성을 활용하여 이용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정보를 공유하며 콘텐츠를 만들어 나가는 특성이 있다. 전통매체가 일대다(one-to-many)의 일방적 관계형에 기초한 커뮤니케이션의 속성을 가졌다면, 소셜 미디어는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가 다양한 이용자에 의해 생성되고 공유되는 다대다(many-to-many)의 쌍방향적 관계성을 토대로 한다. 소셜 미디어를 통하여 사람들이 공동체를 만들기 쉬운 이유는 누구나 만들 수 있고 누구나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회복적 가르침의 공동체성을 가장 쉽고 효과적으로 응집시킬 수 있는 방식으로써 SNS를 활용하는 것이다. 오프라인 강의실과 온라인 SNS(페이스북:그룹)공간을 함께 활용하여 수업을 진행하는 블랜디드러닝 방식이 본 회복적 정의 교육의 방법적 원리이다.

4) <http://ko.wikipedia.org/> 한글위키피디아, 검색어: 소셜 미디어

1) 블렌디드러닝

블렌디드러닝은 혁신적인 정보기술 발전에 기초한 온라인 학습과 상호작용적 참여를 동반하는 전통적 학습과의 통합을 이루어내며, 개인의 요구에 맞는 맞춤형 학습과 개발 솔루션을 제공한다. 또한 블렌디드러닝은 인간 상호작용을 통해 얻어 낼 수 있는 지혜와 일대일 코칭을 통해 지원된다(Kaye Thorne(2003).

이처럼 혼합형 학습(Blended Learning, 블렌디드 러닝)은 두 가지 이상의 학습방법을 결합하여 이루어지는 학습이다. 일반적으로는 온라인 학습과 오프라인 학습이 혼합된 학습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이라는 공간적인 혼합 뿐 아니라 다양한 멀티미디어 자료 및 매체의 통합, 다양한 교수전략의 적용 뿐 만 아니라, 업무와 학습의 통합, 생활과 학습의 통합으로 까지 확대해서 사용되고 있다(조경희,2010).

‘블렌디드러닝’에서 온라인 학습은 테크놀로지를 활용함으로써 개별학습과 학습자들 간의 상호작용 증진에 도움을 주며, 여러 형태의 블렌디러닝 솔루션을 활용함으로써 효과를 얻는 교수 방식이다. 보다 목표 지향적이고, 개별적이며, 적시에 실행할 수 있고, 학습자들은 교수자와 상호작용할 수 있다. 또한 학습자들은 동료와 상호작용할 수 있으며, 학습 자료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다. 테크놀로지를 이용한 다양한 기법들을 활용할 수 있다. 수업상황 이 외에 다양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적용할 수 있다(Kaye Thorne, 2003).

2) 융합의 원리

융복합 교육은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 상에 부합하는 인재양성을 위해 다양한 교육 패러다임을 만들고, 그것을 기준으로 다양한 융합과목을 시행하고자 한다. 융복합 교육의 목표는 21세기 지식융합사회를 주도해 나갈 글로벌 창의인재, 즉 글로벌 시대의 변화를 수용하고 예측하여, 미래를 개척하며,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고 고전적인 틀을 뛰어 넘어 새로운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인재양성이다. 이런 교육 패러다임의 내용은 실용적 전문지식의 범위를 뛰어 넘는 것으로 비판적, 종합적 그리고 실천적 능력 함양을 담을 수 있어야(이희용, :11). 비판적, 종합적, 실천적 능력의 개발을 위한 시도로서 회복적 정의 교육은 의미가 충분하다. 단순히 지금까지 시행되어 왔던 방식대로 ‘정의’를 생각하고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비판적 관점에서 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정의’의 개념을 재해석하고자 하는 것이다. 인식적 비판과 종합 뿐 아니라 패러다임을 기반으로 실천하는 것이다. 각 개인이 속한 공동체의 통합과 갈등 상황에서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이정기(2014:65)는 대학에서 융합교육을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를 지식이란 단순히 전달하고 받는 것이 아닌 지식을 스스로 창출하고 응용할 수 있는 기초능력과 문제해결능력 및 의사소통능력을 길러주기 때문이고 한다. 이정기(2014)의 연구에 제시된 융합교양 교과목 개발의 원칙(권성호·강경희, 2008: 이정기, 2014:66, 재인용·재구성함)을 토대로 본 연구에 적용해 보면 다음 <표. 2>와 같다.

기준	세부기준	세부기준에 따른 회복적 정의 교과목의 방향과 목적성
K대학교의 교육목표	K대학의 인재상 - 개혁주의 신앙인격과 교양의 소유자 - 전문지식과 기술의 소유자 -봉사할 수 있는 지식의 소유자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공헌할	- 본 교과목 개발의 사례 연구를 실시하는 대학은 ‘개혁주의 신앙인격과 교양의 소유자’를 인재상으로 보고 있다. ‘기독교세계관’을 전공 필수과목으로 제시하고 있다. 회복적 정의는 패러다임전환을 통해 회복적 패러다임을 공동체 가운데 실천하고자 한다.

	수 있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복적 정의에 관한 개념적 전문성 경비 - 회복적 정의는 학습자들이 속한 각 공동체에 자발적 봉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 개인, 지역사회, 나아가 지구의 한 시민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한다.
교양교과의 적합성	타 학문의 영역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교과목인가?	기독교 세계관 + 현재 사법의 체계 + 비판적 사고 능력 + 의사소통능력 + 공동체의식 함양 등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이는 인접학문인 신학과 사회학, 갈등해결과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학문의 영역에 관하여 이해도를 높일 수 있다고 사료된다.
	최신의 학문 트렌드를 잘 반영하고 있는가?	회복적 정의가 실제 사법에 적용된 것은 1974년 어느 날 캐나다의 작은 도시 엘마이라 (Elmira, Ontario)에서 부터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학교폭력이나 가족해체의 문제 등 갈등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전문가를 필요로 하고 있다.
	전공 지식과 연계되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가?	회복적 정의는 공동체 정의(Community Justice)와 성서적 정의(Biblical Justice)는 가장 큰 배경이 되는 두 축에 기반을 둔다. 이는 본 대학의 주된 학문인 신학과 연계된다. 텍스트적인 신학에서 실천적 신학으로 전환할 수 있는 시너지 효과를 줄 수 있다.
학문간 융합의 적절성	타 학문간 융합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가?	기독교세계관 + 회복적정의 + 비판적 사고 + 창의적 글쓰기 + 토론
	교과 내용이 깊이와 넓이가 적절한가?	지속적인 피드백을 통한 교과 내용의 적절성을 제고한다.
	교과내용과 수업 방법이 수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적절하게 융합되어 있는가?	경험학습 + 창의적교수법 + 학습공동체형성을 통한 목표달성 = 회복적 가르침

	실용적인 교양지식이나 스킬을 함양할 수 있는가?	신뢰서클 진행자로서 학습자들이 속한 공동체의 소소한 갈등을 직접 해결할 수 있다.
학습자 요구의 충족성	학습자의 흥미를 끌 수 있는 내용과 방법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학습자가 능동적으로 참여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흥미를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학습자의 만족도를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는가?	지속적인 피드백과정을 통해 만족도를 점검하고 다음 수업에 반영한다.

<표. 2> 융합 교양 교과목 개발 원칙에 따른 회복적 정의교육

출처: 융합교양 교과목 개발의 원칙(권성호·강경희, 2008; 이정기, 2014:66, 재인용·재구성함)

회복적 정의 교과목 개발의 원리, 즉 회복적 정의를 가르치기 위한 회복적 가르침(Restorative Teaching)을 정리하면 그림 2. 과 같다.



[그림 2] 회복적 정의 교과목 개발의 원리

회복적 정의 교과목 개발은 회복적 정의의 패러다임을 기반으로 회복적 생활교육의 원칙을 수업운영에 활용한 것이다. 경험학습과 창의적 교수법으로 학습자들이 직접 경험하고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스마트 시대를 살아가는 학습자들의 생태를 활용하여 SNS(페이스북 그룹기능)를 통해 수업 시간 뿐 만 아니라 지속적인 학습공동체를 구성하였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두 가지 구조를 혼합하여 블렌디드 러닝으로 교수 방법과 교육 공학적 접근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원리들을 기반으로 융합교양교과목 개발의 원칙의 세부영역의 구조에 대입하여 회복적 정의 교과목 개발이 진행하게 되었다.

Ⅲ. 회복적 정의 교과목의 설계

본 교과목의 개발 절차는 프로그램 개발 모형 중 Boone(1985)의 프로그램개발 개념을 교육설계를 위해 활용하였다. 이 모형은 프로그램개발의 영역을 프로그램 기획(program planning), 프로그램 설계(program design), 프로그램 실행(program implementation), 프로그램 평가와 보고(program evaluation & accountability) 등 네 개의 범위로 설정 되어 있다(김진화, 2001:142). 본 교과목의 설계는 다음과 같은 구조로 재구성하였다. 교육설계 준비, 교육설계, 교육실행, 교육평가의 과정으로 단순한 형식으로 수정하였다.

1. 교과목 설계 준비 : 필요성 분석과 교육설계 준비 단계

교과목 설계를 위한 준비 과정으로 현재 실시되고 있는 회복적 정의 교육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회복적 정의와 관련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대표 단체인 한국평화교육 훈련원과 좋은교사운동, 경기도교육청의 교육내용을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표. 3> 한국평화교육 훈련원과 좋은교사운동, 경기도교육청의 회복적 정의 교육의 내용

한국평화교육훈련원 회복적 정의 워크샵 입문과정 주요내용 ⁵⁾	좋은교사운동 -회복적생활교육 ⁶⁾	경기도교육청 - 회복적 생활교육 ⁷⁾
- 회복적 정의 패러다임의 이해	- 회복적 생활교육	- 회복적 정의란 무엇인가?
- 회복적 공동체 환경 만들기	- 비폭력대화	- 회복적 질문하기
- 회복적 질문	- 회복적 서클	- 회복적 생활교육의 접근 방식
- 회복적 정의 실천 모델	- 서클 프로세스	- 회복적생활교육 대화사례
- 서클의 이해 및 신뢰서클 실습		- 다양한 회복적서클 운영 사례
- 회복적 대화모임의 이해		
- 신뢰서클 기획하기		
- 회복적 대화모임 기획하기		

5) <http://www.kopi.or.kr/index.php> (한국평화교육훈련원)

6) <http://cafe.daum.net/RD-goodteacher> (회복적 생활교육)

<표. 3>를 통해 교육내용의 공통적인 부분이 회복적 정의에 대한 이해의 부분과 실천적 영역으로 나누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회복적 정의에 대한 인식적 측면의 접근과 실제적인 경험의 영역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교과목 개발은 연구자의 역량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이며, 개념화 위해 교수자로서 연구자는 한국평화교육훈련의 회복적 정의 교육과정을 이수 하였다.

* 회복적 정의 개념화와 교수자의 능력개발을 위한 과정

- 2013. 1. 12~26 회복적정의 입문과정 수료
- 2013. 2. 22~23 회복적정의 심화과정 수료
- 2013. 5. 16~18 회복적정의 전문가과정 수료
- 2013. 11. 16~17 회복적정의 강사과정 수료

2. 교과목 설계 : 예비 강의계획서

회복적 가르침의 원리에 기반 한 회복적 정의 교과목의 강의 계획서를 통한 교과목 설계를 구조화하였다. 앞서 회복적 정의 워크샵 관련 교육에 대한 분석과 교수자가 직접 교육에 참여하여 얻은 지식과 실천적 방식을 토대로 강의계획서를 <표. 4>를 구성하였다. 일반적으로 실시되어 오던 워크샵 형태의 회복적 정의와 대학생을 위한 학술적인 교육설계에서 회복적 정의를 가르치는 것은 기존의 교육과는 다른 교육 과정이 필요하다(Gilbert , 2012:43). 실습 위주로 진행되어 오던 워크샵의 내용을 보다 학술적인 방향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주교재로 선택한 “회복적 정의란 무엇인가?”의 내용을 학습자와 함께 탐구하고자 각 장을 매 주마다 과제로 제출하여 정리하도록 하였다.

<표. 4> 강의 계획서 및 교과목 설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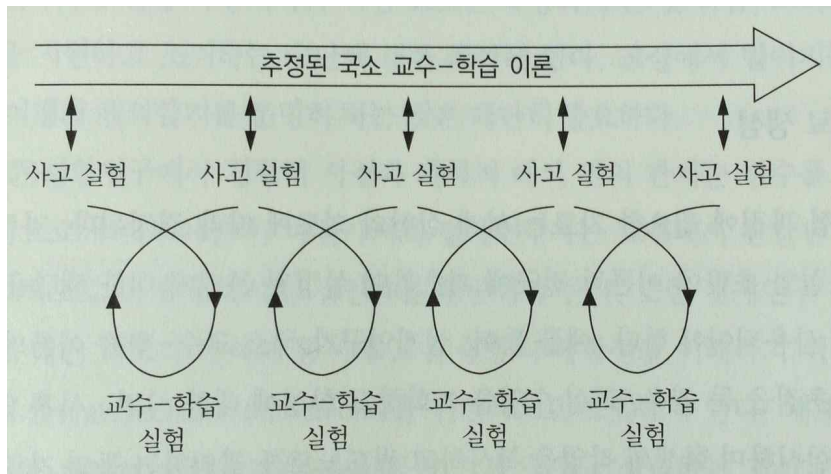
수업방법	회복적 교수방법을 활용한 교수자와 학습자의 학습공동체 회복에 초점을 맞춤
	회복적교수방법의 원리 = 회복적생활교육+경험학습+창의적교수법+블렌디드러닝+융합
수업목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법적(응보적)정의와 회복적 정의의 차이를 인식하고 회복적 패러다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실천 한다. 2) 개인의 트라우마를 공동체의 인식전환을 통해 치유 할 수 있다. 3) 기독교적 평화와 정의의 실천으로써 회복적 정의를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다.
강의교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교재: 회복적 정의란 무엇인가? (하워드제어 / KAP) : 매 주 요약과제 (장 별로 읽고 한 장으로 정리하여 제출) ■ 참고교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클 프로세스 (케이 프라니스 / KAP) - 정의와 평화가 입 맞출 때까지 (니콜라스 월터스토프 / IVP) - 화해를 향한 여정 (존 폴 리더락 / KAP) - 트라우마의 이해와 대응 (케터린 요더 / KAP)

7)

http://www.goehs.kr/board/board.php?task=view&db=mini_board2&no=142&page=1&search=&searchKey=&category=&pageID=ID12424375792 (경기도오산화성 교육지원청)

주차	강의계획서 (수업 전 자료)
1	오리엔테이션 : 왜 회복적 정의인가?
2	회복적 정의의 패러다임 이해
3	회복적 공동체 환경 만들기
4	회복적 질문과 비폭력대화
5	회복적 정의 실천모델
6	서클의 이해 및 신뢰서클 실습
7	중간고사
8	기독교적 관점에서의 정의 실천과 회복적 정의
9	가정에서 회복적 정의 실천 방안
10	학교, 지역 공동체에서 회복적 정의 실천 방안
11	신뢰서클 기획
12	회복적 대화모임 기획
13	회복적 정의와 통합적 적용 방안
14	회복적 정의 통합적 적용 방안 프로젝트 기획
15	기말고사

< 표. 4 >의 강의계획서와 교과목 설계는 연구자이자 교수자 개인의 역량과 본 교육의 내용을 워크숍 형태로 일반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교육에 참가하여 얻은 경험을 기반으로 구성한 것이다. 회복적 가르침은 교사 개인의 역량과 경험만으로 학습공동체를 구성할 수 없기 때문에 학습자와 이론과 교육실행간의 지속적인 성찰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방법은 교수-학습 활동과 기타 설계 요소를 설계하고 검증하는 순환의 과정이기 때문에 학습활동이 강의 공간에서 어떻게 상호작용 과정에 나타나며 학습자의 참여를 통해 무엇을 배우고 있는지 실행과정을 분석하는 것이다(Akker 외, 2006/2013: 46-50).



[그림 3] 이론과 실험(실행)간의 성찰적 관계
출처: Akker 외(2006/2013), 교육설계연구 : 51

본 연구의 과정은 교과목설계 실행의 과정이다. 본 과정은 그림3의 과정으로 정리해 볼 수 있다. 교과목 설계실행과정에서 사고실행과 교수-학습 실행 간의 미시주기는 국소적인 교수-학습의 개발을 돕는다. 사고 실행, 교수-학습 실행, 교수-학습이론은 상호연결 되어 있으며, 성찰적 관계에 놓여 있다. 교수-학습 이론은 사고 및 교수-학습 실행을 안내하면서도 설계와 분석의 미시주기는 국소적으로 교수-학습 이론을 지지한다. 미시주기를 통해 새로운 사고가 실행되며, 교수-학습활동의 설계 혹은 개선, 때로는 학습 목표의 변경에 영향을 주는 개별 학습자의 활동과 강의실내 사회 과정을 지속적으로 분석한다. 본 연구에서 분석과정과 설계 실행이 진행되는 과정을 직접 교수하였다. 공동의 이해와 해석을 공유하기 위해 해당 수업 후 학습자들의 개별적 성찰일지를 공유하여 수업의 평가와 지속적인 방향설정을 위해 활용하였다(Akker 외, 2006/2013:51).

<표. 5>는 회복적 정의 교과목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학습자와의 상호작용과 회복적 정의 패러다임의 인한 인식의 전환과 학습공동체의 피드백으로 재구성된 교과목 설계이다.

<표. 5> 학습공동체의 상호작용과정을 통해 재구성된 수업 설계

주차	회복적 수업 과정을 활용한 수업 설계		
	수업 전 설계	피드백	피드백 적용 후 재설계
1	오리엔테이션 : 왜 회복적 정의인가?	학습자들의 주 교재 요점정리 과제 (선행학습) & SNS 페이스북 그룹을 활용한 학습자들의 피드백과 수업성찰을 수업설계에 반영함	오리엔테이션 : 회복의 종이 비행기 왜 회복적 정의인가?
2	회복적 정의의 패러다임 이해		패러다임전환#1: 2014. 9.11 범죄경험에 대한 기억공유 정의란 무엇인가? 책임과 용서의 이해 범죄에 대한 새로운 이해
3	회복적 공동체 환경 만들기		패러다임전환#2: 2014. 9. 18 억울했던 처벌경험 공유 수치심의 이해 응보적(사법적)정의의 이해
4	회복적 질문과 비폭력대 화		패러다임전환#3: 2014. 9.25 회복적 산책 패러다임의 이해 회복적 패러다임 적용하기
5	회복적 정의 실천모델		패러다임전환#4: 2014. 10. 2 회복적 글쓰기 응보적 vs 회복적 패러다임 복습 회복원정대 이야기 회복적 정의의 역사
6	서클의 이해 및 신뢰서클 실습		패러다임전환#5: 2014.10. 16 응보적 vs 회복적 대화실습 살림의 진정한 의미 VORP의 이해
7	중간고사		패러다임전환#6: 2014.10.23 신뢰서클경험 신뢰서클 기획하기
8	기독교적 관점에서의 정 의 실천과 회복적 정의		중간고사 : 회복적 평가 (중간고사 공모전을 통해 학습자의 의견 반영)
9			실행연구 중...

VI. 회복적 가르침을 통한 패러다임 전환 과정

: 회복적 가르침을 위한 다양한 시도

2014년 2학기 대학에서 회복적 정의 교육을 교양 교과목으로 개설하고 실행하게 되었다. 8) 교과목을 설계하고 진행하는 과정을 통해 학습자들의 성찰과 가르침의 과정에서 얻은 통찰을 토대로 회복적 정의 교육의 의미를 분석하고 정리하고자 한다. 분석에 활용한 자료는 학습자들과 함께 소통하기 위한 공간으로 활용한 페이스북 그룹에서 상호작용한 수업과 개인적인 삶에 대한 학습자들의 글과 심층면접 자료, 중간고사 이후 학습자들이 수업에 대하여 기술한 자료, 교수자의 수업일지이다. 무엇보다 회복적 가르침의 원리와 회복적 패러다임의 핵심적인 사항인 공동체적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2014년 2학기 교양선택 과목인 “회복적 정의와 실제” 수업을 수강 신청한 학생들은 총 54명이고, 매 주 목요일 1, 2 교시에 현재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수강 신청한 학생들은 성별 비율은 남학생이 24명 여학생이 30명으로 비슷한 비율로 구성되었다. 학과는 간호학과 7명, 음악과 5명, 국제문화선교학과 10명, 기독교교육과 5명, 보건환경학부 3명, 사회복지학과 6명, 신학과 9명, 영어영문학과 2명, 인터넷비즈니스학과 2명, 재활학과 3명, 중국학전공 2명으로 구성되어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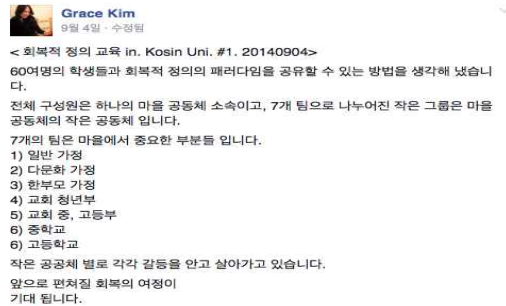
본 연구를 위한 세 번째 질문 회복적 정의 수업 진행과정의 교육적 의미와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수업의 실제 실행과 학습공동체가 구성되어 가는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1. 회복적 오리엔테이션

회복적 정의 수업은 학습공동체를 형성하고 우리 주변의 공동체의 회복을 위한 실천적인 수업이다. 학습공동체 구성은 7개의 팀으로 남, 녀 비율과 다양한 학과가 골고루 섞일 수 있도록 교수자가 임의로 팀을 구성하였다. 보통 이미 친밀한 관계가 형성된 학습자들끼리 조 편성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학습공동체의 편차가 커질 수 있는 우려와 복학생이나 내성적인 학생들은 걸들 수 있는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교수자가 직접 팀을 구조화 시켰다.

첫 오리엔테이션 시간은 수업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팀을 구성했다. 수업에 참여한 모든 학습자들은 하나의 마을 구성원이다. 7개의 각 팀은 마을을 구성하는 공동체 중 하나를 설정하도록 했다.

이후 7개의 팀은 일반가정, 다문화가정, 한부모 가정, 교회청년부, 교회 중고등부, 중학교, 고등학교로 학습공동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설정하였다. 학습공동체는 그림4와 같이 좁은 강의실에서 서클의 구조를 최대한 반영하고자 하였다.



[그림4] 회복적 오리엔테이션 / 교수자가 페이스북에 게시함: 20140904

8) 법학관련 학과의 전공과목에서 회복적 정의를 선택적으로 다루기는 하지만 대학의 교양과목으로 개설된 것은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았음.

회복적 오리엔테이션의 경험을 위해 열린 질문과 이에 관한 활동으로 시작했다. “나의 비행기” 활동이다. 학습자들에게 A4용지를 한 장씩 나누어 주고 무작정 교수자를 따라서 종이를 접으라고 한다. 학습자들은 어떤 결과물이 되는지 알지 못하고 그저 교수자를 따라 접고 난 후 결과물이 종이비행기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늘 이렇게 단순히 누군가를 따라서 행동하고 생각했던 경험들에 대하여 피드백하고 다시 그 종이비행기를 펼쳐서 자신만의 비행기로 다시 접어보라고 한다.

그리고 그 비행기를 타고 가고 싶은 곳을 쓰고 왜 그곳에 가고 싶은지 조원들에게 돌아가면서 이야기하게 한다. 이과정은 회복적 오리엔테이션과 앞으로 수업 방향에 대한 시작을 알리는 활동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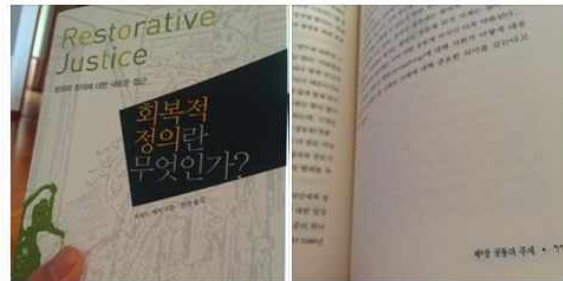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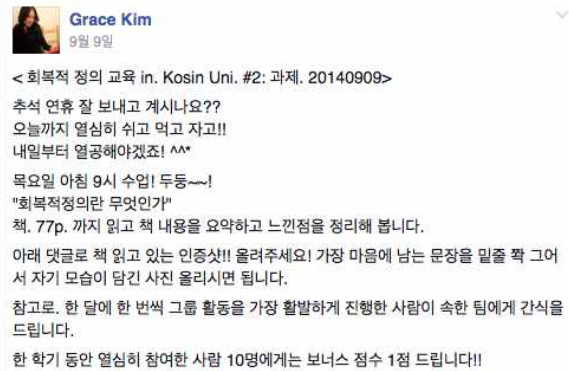


[그림 5.] 나의 비행기 : 남의 것이 아닌 자신만의 비행기로 재탄생한 작품

#2. 회복적 과제

회복적 가르침을 통한 회복적 정의 교육은 수강계획서를 중심으로 전개하지 못했다. 수업이 전개되고 난후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패러다임에 대한 인식적 전환임을 깨달게 되었다. 그래서 주교재로 정한 “회복적 정의란 무엇인가?”를 각 장 별로 읽고 읽은 부분 중에서 가장 인상에 남은 부분을 인증샷으로 찍어 올리고 각 장별로 한 페이지에 요약 해오는 방식을 취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 회복적 패러다임으로 가는 과정을 미리 학습하고 학습하는 과정에서 궁금한 점을 발견하여 수업시간에 해소하는 방식을 취하게 되었다. 그림6.은 과제 제시 방식을 알려주는 글이다.

이를 통해 그림 7.과 같이 학습자들은 일상적인 책읽기 결과물을 제출하는 과제가 아닌 책읽기 과정에서 발견한 각자의 의견을 나누는 활동이 되었다.



[그림6.] 회복적 과제 / 교수자가 페이스북에 게시함: 20140909

"그들의 폭력은 아무런 이유없이 행사되는 망령이나 질병이 아니며, 단순히 잘못된 욕망을 표현하는 수단도 아니다. 오히려 그들의 폭력은 황폐하고 잔인한 삶에 대한 적응 방식이다. 폭력적인 사람이 보이는 대부분의 폭력은 궁극적으로 타인에 대한 적개심과 타인의 학대에 의해 태어났고, 낮은 자존심과 분열된 자긍심을 먹고 자란다. 역설적으로 폭력은 자신에게 발생했던 폭력앞에 무기력하고 나약했던 자신의 경험을 부인하고자 하는 왜곡된 형태의 자기방어일 뿐이다. 그들의 폭력이 무고한 피해자를 원할때, 이것은 자신들의 신념의 승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통제력의 상실을 표현한다" -50p

폭력적인 사람은 보기엔 강해보이지만, 그 깊숙한 내면에는 저러한 약한 모습이 자리잡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어떻게보면 폭력적인 사람도한 '황폐하고 잔인한 삶에 대한 적응 방식' 이라고 말할 것처럼 그러한 삶으로부터의 아픔이 있는 피해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어 마냥 기피하고 답을 쌓을 것이 아닌 불쌍히 여겨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9월 10일 오후 11:46 · 좋아요 취소 ·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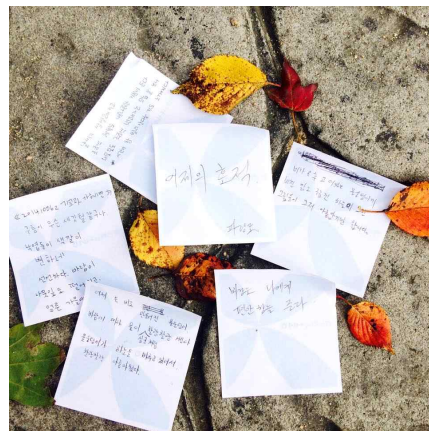
[그림7.] 회복적 과제 인증샷 / 학습자 A가 댓글로 게시함

#3. 회복적 학습공동체를 위한 수업활동

배움은 개인에게 뿐 만 아니라 집단의 경우에도 아주 중요하다. 집단이 건강하면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그들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더욱 효과적으로 배울 수 있는 환경 속에 있게 된다. 집단 그자체도 배우게 된다. 건강한 집단은 복잡한 문제를 풀어 가는 데 아주 생산적이다. 그런 점에서 학습조직은 반드시 공동체여야 한다. 집단의 건강은 개인의 건강보다 더 큰 의미가 있다. 한 개인이 나머지 삶을 훌륭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배움을 계속해야 하는 것처럼, 조직이나 기관도 마찬가지이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문명의 존속 여부는 우리가 속해 있는 기관들이 지속적 공동체로 발전해 나가고 지속적인 학습조직이 되느냐에 달려 있다(Peck, 1997, 2004: 179-181). 회복적 정의 교육은 학습공동체의 성공적 결합과 조직의 운영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를 위해 집단의 공동체성을 높이는 활동이 요구 된다.

학습공동체의 친밀감과 수업목적을 함께 이루기 위한 활동으로 '회복적 산책'을 진행하였다. 팀별로 캠퍼스의 자연을 바라보고 각자 느낀 점을 작은 종이에 적어 서로 나눈다. 학습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동의하는 한 공간에 놓고 인증 사진을 찍는다. 구성원 전체의 생각을 한 단어 혹은 구절로 정리해 보게 한다.

그림8. 은 회복적산책 활동의 한 예이다.



[그림8.] 회복적 산책을 통한 느낀 & 나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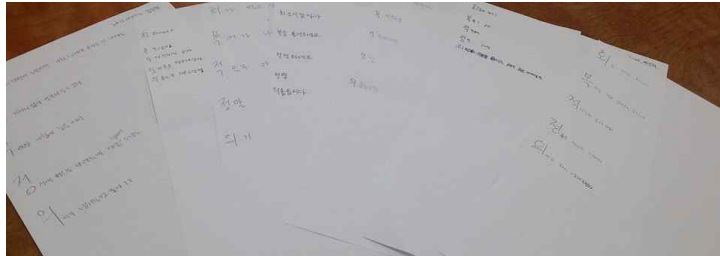
다음은 회복적 산책활동과 그 날의 수업을 통해 깨달은 수업 성찰일지 중 하나의 사례이다.

아침에 잠도 덜 깬 상태로 수업에 들어간 것 같은데 산책할 기회를 얻게 되어 좋았습니다! 학교수업, 알바, 과제의 반복적인 생활패턴이 몸에 있어서 하늘과 바다, 자연을 보지 않고 살았던 것 같았습니다. 바쁘더라도 자연을 보며 한 템포 쉬어가야겠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패러다임이란 인식의 틀이므로 고착되는 것이 아니라 유연하게 바뀔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순간에, 단기간에 바뀌는 것을 기대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응보적 패러다임에서 회복적 패러다임으로 가는 과정 속에서의 큰 저항을 이겨내야만 진정한 변환을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이부분이 이번 수업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고 인상 깊은 내용입니다.

* 김봄(회복적 산책과 수업을 통해 성찰한 내용을 페이스북 그룹에 기록함)

[그림 9]는 회복적 정의 수업에 본격적으로 임하기 전에 도입 활동으로써 회복적 글쓰기 활동을 적용한 사례이다. 보통 삼행시로 자기이름을 앞 글자로 하여 시 쓰기 활동으로 진행되는 것인데, “회복적정의” 다섯 글자로 오행시를 지어 서로 읽어주고 나눔을 통해 학습공동체의 친밀감을 향상시키는 수업 전 활동이다.



[그림9.] 회복적 글쓰기

회복적 글쓰기를 통해 조원들과의 다양한 생각을 나눌 수 있었고 각자의 글을 나눔으로서 자연스럽게 수업에 임할 수 있었습니다. 회복적 정의가 실현되기 위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고 이론적으로만 가능한 추상적인, 철학적인 것이라 생각했는데 학교폭력 해결을 위한 회복적 대화모임으로 다녀온 회복 원정대의 소감과 회복적 패러다임으로 잘 해결됐다는 것을 듣고서는 회복적 정의가 실제로 적용되는 것을 보고 회복적 정의는 실천적인 패러다임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 박여름(회복적 글쓰기와 수업을 통해 성찰한 내용을 페이스북 그룹에 기록함)

앞서 정리해본 학습공동체의 친밀성을 높이는 활동은 본격적인 수업에 들어갈 수 있는 역할을 해준다. 수업이라는 긴장감과 각자 다른 전공과 학년이 어울려져서 친밀한 학습공동체를 이루어 가는 과정은 순차적인 과정이며 도전이다.

#4. 인식적 전환 & 행동하는 회복적 정의

수업마다 주 교재를 읽고 요약하여 정리하고 과제로 제출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인식적 전환과 수업에 있어 효율성은 높아질 수 있다. 인식적 전환을 위한 노력은 교재 읽기와 요약, 정보와 자료 조사 등으로 가능할 수 있다. 하지만 실천적 변화를 위해서는 직접 체험하고 행동으로 실천해야 한다.

회복적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기 위한 실천방식은 직접 해보는 것이다. 이를 이해 학습공동체별로 첫 시간 설정한 공동체의 성격과 상황을 구조화 시켜 갈등시나리오를 작성한 후 가해자와 피해자에게 응보적 메시지와 회복적 메시지 혹은 질문을 던지게 하였다. [그림 10]은 각 학습공동체 별로 상황에 대한 응보적 메시지와 회복적 메시지를 작성하고 실제 상황처럼 재연해 보는 것이다.



[그림 10] 응보적 메시지 & 회복적 메시지 실습

이 과정은 학습자들에게 실제적, 실천적 방식의 회복적 정의를 경험하게 했다.

먼저 저는 돌마니이지만 가해자이면서도 피해자의 역할 이었습니다. 응보적 메시지를 들었을 때에 응보적 말만 듣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분명히 내가 한일도 아닌데... 응보적 메시지는 치명적이었습니다. 회복적 메시지는 내 마음을 위로해 주었습니다. 만약에 실제 상황에서 응보적 메시지를 들었다면 정말 힘들었을 겁니다. 회복적 메시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몸소 깨달은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 최가를 (회복적 메시지 실습과 수업을 통해 성찰한 내용을 페이스북 그룹에 기록함)

#5. 회복적 시험 & 질문

Leeds(2000/2002:21-22)는 ‘질문은 대답이다.’라고 하였다. 질문을 통해 특별하고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각별한 대인관계를 형성하며, 타인을 설득하고 자극한다. 좀 더 창의적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생활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회복적 가르침을 위한 평가를 위해 중간고사 공모전을 실시하였다. 질문을 만들 수 있는 역량을 기를 수 있으며, 학습자들의 질문을 통해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중간고사 문제에 보너스 점수를 배정하여 시험을 치면서 느낀 점과 중간고사 까지 오면서 수업을 통해 새롭게 깨달은 것과 개인적인 변화를 경험한 부분은 무엇인지 질문하였다. 회복적 가르침이 공동체에 초점을 두고 있지만 각 개인이 건강하지 않으면 행복한 공동체를 이룰 수 없기에 54명의 수업에 대한 피드백과 앞으로 남은 수업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함이었다.

- 질문 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중간고사를 보면서 느낀 점을 쓰시오.
- 2) 지금까지 회복적 정의 수업을 통해 느낀 점과 개인적인변화를 경험한 부분은 무엇인지 간략하게 쓰시오.
- 3) 앞으로 남은 수업시간동안 더 배우고 싶은 점이나 담당교수에게 바라는 점, 하고 싶은 질문 등 자유롭게 쓰시오.

다음은 2번 질문인 수업시간을 통해 느낀 점과 개인적 변화의 경험을 쓴 사례이다.

기준에 가지고 있던 가치나 의미들, 사고의 틀에 대한 개념이 “회복”적인 방향으로 갈 때 가질 수 있는 높은 가능성들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일례로, 기윤실 활동을 하고 있는데 대표 목사님과의 대화 중에서 “회복적 윤리”의 가능성에 대하여 의견을 나눈적이 있습니다. 기준에 윤리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패러다임은 정죄와 단죄, 평가, 비윤리, 부도덕으로 흑백논리화 하는 “윤리적인 인간들의 윤리적인 사람들을 위한 윤리”였다면, 이제는 회

복적 접근을 통해 “윤리적이 못한 사람들을 위한 윤리”, 즉 윤리적이 못했던 현실에서 윤리적인 삶으로 회복을 추구할 때에 타락하고 범죄한 그 상태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서 점차 윤리적인 상태로 회복할 수 있는 ”회복적 윤리“의 가능성에 대하여 말씀드렸더니 흥미로워 하셨습니다. 이는 현재 특수 청소년(비행, 성매수청소년) 사역을 위한 발판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 이 창조 (중간고사 시험지에 기록한 수업성찰과 개인적응)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회복적 정의 수업을 통해 옹보적이었던 자신의 모습을 반성하고 회복적인 행동방식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자신을 발견했다고 기록하였다. 특히 위 사례는 이 수업을 통해 실제 삶에서 회복적 정의의 패러다임을 전달하고 새로운 영역에 적용하고자 하는 도전정신을 발견할 수 있었다.

앞으로 남은 시간 회복적 정의에 대한 사례에 직접 참여해 보고 싶습니다. 수업에서 배운 것을 실제로 어떻게 쓸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고, 회복적 모임이나 우리 공동체에서도 한 번 나누어 보고나 학교 안에서 그런 모임이 있었으면 합니다.

- 박은성 (중간 고사 이후 더 배우고 싶은 영역에 대한 기록)

배움이란 집단적인 성장의 기회이며, 집단은 배움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가지기 시작해야 한다. 이런 사실을 통해 어떻게 교육하고 가르쳐야 할지 통찰력을 가지게 된다(Peck, 1997, 2004: 181). 이 같은 개인적, 공동체적 배움의 과정과 성찰을 바탕으로 회복적 가르침의 방향을 설정하게 될 것이다. 앞으로 남아 있는 수업시간에 더 배우고 싶은 것은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은 거의 대부분 자신의 삶과 공동체에 적용할 수 있는 실제적인 영역을 더 배우고 싶다고 하였다. 학습자들의 피드백을 토대로 앞으로 남아있는 수업의 설계방향을 재구성하고 수업에서 회복적 정의 패러다임이 실현되는 회복적 가르침을 지속하고자 한다.

VI. 나가며 : 미(未)완성에서 미(美)완성으로

‘회복적 정의’ 교과목의 실행은 미완성된 설계로 회복적 교과목을 개설하였다. 수업하는 과정에서 학습자들이 학습공동체 가운데 성장과 변화를 경험하는 것을 목격하고 학습자들의 성찰과 지속적인 피드백을 통해 미완성을 다듬어 가는 과정이다. ‘회복적 정의’는 한국에서 대학교과목으로 전무하였기에 연구자는 2013년 한 해 동안 일반인과 교사를 대상으로 한 회복적 정의 워크숍에 서울과 지방을 오가면서 참석하였다. 실제적 경험을 학구적인 형식으로 담아 회복적 정의의 실천적 양상도 함께 경험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회복적 가르침’의 원리를 본 연구의 주된 이론적 배경으로 제시하였다.

회복적 가르침의 원리를 토대로 구성한 회복적 정의 교과목 설계는 2014년 2학기 A대학교 교양선택과목 “회복적 정의의 이해와 실제”의 형식으로 개설하게 되었다. 54명의 학습자들과 미완성된 설계를 들고 학습자들과 직면한 교수자의 도전은 아직 미완성이다. 교육이 학습자의 성장과 변화를 위함이라고 한다면 회복적 정의 패러다임을 실천하는 것과 교육은 그 목적을 같이 한다. 회복적 정의 패러다임 또한 개인과 공동체가 회복적으로 인식을 전환하여 이전과는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고 회복적으로 변화하고 성장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2014년 2학기 아직 미완성이지만 중간까지 함께 한 소중한 학습공동체 54명의 기록과 메시지를 통해 알 수 있다. 학습자들은 자기 자신이 옹보적 가치관을 그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고, 인식을 넘어 회복적 패러다임을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게 되었다.

교수자는 학습공동체를 구성하고 지속시키는 회복적 가르침을 위한 다양한 실천을 실행하게 되었다. 앞서 정리한 회복적 가르침의 다양성은 교수자 홀로 실행할 수 없는 상호적인 활동이다. 즉, 학습자들의 지속적인 성찰과 격려와 피드백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가르침의 실천이다.

본 연구는 미완성된 교과목 설계이지만 회복적 가르침을 통한 회복적 정의 교육은 학습자의 통전적이고 전인적인 성장의 매개가 되었음은 분명하다. 교과목 설계의 전 과정이 아직 마무리 되지 않은 상태이다. 본 연구의 실행이 끝이 난다고 하더라도 미완성의 상태로서 마무리 될 것이다. 미완성의 가능성이야말로 회복적 가르침을 위한 전제가 되기 때문이다.

본 연구 과정은 보다 구체화 되고 완성된 ‘회복적 정의 교과목’ 개발을 위한 기반이 되었다. 또한 ‘회복적 가르침’에 대한 개념과 원리를 기반으로 각 교과목에 적용하기 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공하였다. 미완성된 본 연구가 완성된 연구를 위한 매개의 역할과 동기를 부여했다고 본다.

참고문헌

- 김세광(2011). “청소년 역량 증진을 위한 창의적 교수법 실행연구”.명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진화(2001).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론』. 서울: 학지사.
- 김은경(2007). 21세기 소년사범 개혁과 회복적 사범의 가치 21세기 소년사범 개혁과 회복적 사범의 가치. 형사정책연구. 18(3). 1159-1188.
- 김정현·이성훈(2004). 아름다운 리더 양성을 위한 교과목 개발 연구-안양대학교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스피치커뮤니케이션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63-83.
- 박숙영 (2012). 학교폭력과 생활지도의 새로운 대안 “회복적 생활교육”, 현장 적용 사례를 통한 확산 방안을 말한다. 서울: 좋은교사운동 문서출판부.
- 배임호 (2007). 회복적 사범정의(Restorative Justice)의 배경, 발전과정, 주요프로그램 그리고 선진교정복지. 교정연구. 37, 137-169.
- 서정기 (2011). 학교폭력에 따른 갈등경험과 해결과정에 대한 질적 사례연구 : 회복적 정의 (restorative justice)에 입각한 피해자-가해자 대화모임(victim-offender mediation)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서울.
- 정재삼 (1997). 최신 교수설계이론의 탐구, 교육과학연구, vol. 26. pp.157-174.
- 조경희(2010). “블렌디드러닝 토론학습이 직업기초능력에 미치는 효과 연구.” 공주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유영만 외(2009). 『제 4세대 HRD 즐거운학습, 건강한 지식, 보람찬 성과, 행복한 일터』.서울:학지사.
- 이정기(2014). 기독교대학 교양교육과정 개발의 융합적 접근, 기독교교육논총, 37, 53-81.
- 이희용(2011). 지식융합 교육을 위한 교양 교과목 개발과 기본모델, 교양논총. vol. 5. 5-26.
- Amstutz, L. S. and Mullet, J. H.(2005). 이재영, 정용진 역 (2011). 『학교현장을 위한 회복적 학생생활지도』, 서울: KAP.
- Barb Toews(2013). *Toward a restorative justice pedagogy: reflections on teaching restorative justice in correctional facilities*. Contemporary Justice Review, Vol. 16, No. 1, 6 - 27.
- Bob Pike(2003). 김경섭·유제필 역(2004). 『밥 파이크의 창의적 교수법 :교육효과를 극대화 하는 학습자 중심의 참여교육』. 서울: 김영사.
- Dorothy Leeds(2000). The Powers of Questions . 노혜숙(2002). 서울: 더난 출판.
- Jan van den Akker · Koeno Gravmeijer · Susan McKenney · Nien Nieveen(2006).Educational Design Research. 서순식·김민규 공역(2013). 『교육설계연구』. 학지사.
- Howard Zehr(2005). *Change the lenses*. 손진 역(2011). 회복적 정의란 무엇인가?. KAP.
- Kaye Thorne(2003). *Blended Learning*. 김성길외 공역 (2005). 『블렌디드러닝』. 학지사.
- Ted Huddleston · David Kerr(2006). Making sense of citizenship. ACT. Citizenship Foundation. Hodder Murray.
- Michael J. Gilbert· Mara Schiff· Rachel H. Cunliffe(2013). *Teaching restorative justice: developing a restorative andragogy for face-to-face, online and hybrid course modalities*. Contemporary Justice Review, Vol. 16, No. 1, 43 - 69.
- M. Scott Peck(1997). *The road less traveled and beyond*. 손홍기 역(2004), 『아직도 가야 할 길 그리고 저 너머에』. 서울: 열음사.

<http://www.kapi.co.kr/jido/jido3.asp> (한국행동심리연구소)

<http://cafe.daum.net/RD-goodteacher> (회복적 생활교육)

<http://www.kopi.or.kr/index.php> (한국평화교육훈련원)

http://www.goehs.kr/board/board.php?task=view&db=mini_board2&no=142&page=1&search=&searchKey=&category=&pageID=ID12424375792 (경기도오산화성 교육지원청)

[대학생을 위한 ‘회복적 정의’ 교과목 개발 사례] 논찬

회복적 정의와 프락시스

박숙영 (좋은교사운동 산하, 회복적생활교육연구회 대표)

목차

1. 패러다임의 변화, 회복적 정의
2. 삶의 변화와 성장을 위한 배움의 방식, 프락시스(praxis, 성찰적 실천)
3. 제언

1. 패러다임의 변화, 회복적 정의

‘잘못한 사람은 그에 응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라는 응보적 정의는 인류의 오래된 신념이다. 처벌중심의 응보적 정의는 윤리적으로는 수치심의 윤리와 심리적으로는 두려움에 기반하며, 사회 구조적인 면에서는 권위적이고 위계적인 사회질서를 강화해 왔다. 응보적 정의로 인해서 우리 사회가 정의로워졌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그렇다라고 대답할 수 없는 현실에 처해있다. 여전히 범죄와 재범률이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경제적·사회적 정의가 심각하게 훼손·왜곡되고 있다.

이러한 한계에 대해 회복적 정의가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피해회복과 관계회복을 중시하는 회복적 정의는 윤리적으로 죄책감의 윤리와 심리적으로는 공감과 유대를 기반으로 하며, 사회 구조적인 면에서는 동등한 참여와 협력의 질서를 강화한다.

현대사회는 과거의 전통적 권위에 저항하고 자율성과 다양성 존중, 소통과 협력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권위와 위계질서를 강화하는 응보적 정의는 더 이상 작동되고 있지 않은 패러다임이다. 반면에 공감과 유대를 통한 관계성과 공동체성 회복을 목표로 하는 회복적 정의 패러다임은 현대사회의 필요와 요구에 잘 부합한다.

이렇기 때문에 회복적 정의가 급변하는 21세기의 시대를 주도해야 할 대학생들에게 교양 과목으로 다루어지는 것은 매우 적절할 뿐만 아니라,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아직까지 회복적 정의가 대학교육의 교양과목으로 다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김세광 교수의 ‘회복적 정의 교과목 개발’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2. 삶의 변화와 성장을 위한 배움의 방식, 프락시스

브라질의 교육학자인 파울로 프레이리는 “인간의 행위는 행동과 성찰로 이루어진다. 그것은 곧 프락시스¹⁾이며, 세계를 변화시킨다. 인간행위는 이론과 실천이며, 성찰과 행동이다.

인간행위는 탁상공론이나 행동주의로 환원될 수 없다.”²⁾라고 했다. 즉, 학생에게 지식을 주입시키는 ‘은행저금식 교육’에서 벗어나서, 학생과 교사가 프락시스를 통해 비판적 공동탐구자로서 함께 배우고 가르치는 ‘문제제기식 교육’만이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강조한다. 프락시스는 행동을 성찰하고, 성찰에 의한 배움을 행동에 다시 반영하는 배움의 방식이다. 이를 위해서 배움의 공간은 교사와 학생간의 활발한 대화와 피드백이 이루어지는 상호 관계적 배움의 방식을 강조한다. 이러한 관계적 배움의 방식은 관계성과 동등한 공동체의 참여를 중요시 하는 회복적 정의 패러다임과도 일치한다.

김세광교수의 회복적 가르침은 경험학습의 원리와 창의적교수법의 원리를 기반으로 블랜디드러닝과 융합의 원리를 접목함으로써 설명전달식의 강의방식에서 벗어나서 다양한 소통과 공동체의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관계적 배움의 방식을 가능하게 한다. 특별히 스마트 시대에 살고 있는 학습자들의 배움 환경을 교수법으로 적극적으로 끌어 들인 SNS 활용수업은 인상적이다. 배움의 성찰이 물리적 공간과 시간을 넘어 SNS 상에서도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어서 학생들의 배움이 일상의 삶과 분리되지 않고 통합되는 데 기여했다고 생각한다. 회복적 정의 교과목 오리엔테이션 때 이루어졌던 열린 질문과 ‘나의 비행기’ 수업은 질문과 짧은 활동만으로도 생각을 전환시키는 효과적이고 통찰력 있는 수업이었다고 본다. 배움은 주입을 통해서가 아니라 주체적 참여를 통해 이루어짐을 다시 발견하게 했다. 또한 팀별 활동은 구성원간의 관계성 강화에 도움이 되었다고 본다.

파울로 프레이리가 강조했던 성찰적 실천, 즉 praxis가 김세광 교수의 학습 공간 안에서 다양하게 시도되었고, 한 학기 동안의 짧은 시간이었지만 학생들의 사고변화와 구성원 간의 관계성이 강화를 이끌어 냈다고 생각한다. 학생들의 주체적 사고의 변화와 구성원 간의 관계성 강화는 회복적 정의가 지향하는 바로, 이에 김세광교수의 배움의 방식이 회복적 정의의 목적을 이루는데 효과적이었다고 생각한다.

3. 제언

김세광 교수의 새로운 시도에 대해 축하하며,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우선, 가장 아쉬운 것은 상호 소통하면서 배우기에는 수강생 인원이 다소 많지 않았나 하는 점이다. 수강생이 총 54명인데 비해서 시간적으로는 일주일에 2시간이 주어졌다. 전달식 강의 수업에 비해, 관계적 배움은 충분한 자기 성찰과 대화의 시간을 요구한다. 숙고된 개인의 성찰이 타인의 경험과 나누어지는 과정을 통해 공동체는 공동의 지혜를 창출하고 개인은 더 큰 통찰을 경험하게 된다. 50명이 2분씩만 성찰을 나누어도 100분이 걸리고, 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2분 말하기 위해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길다. 성찰과 경험을 나누는 수업을 하기에는 인원적으로나 시간적으로 한계가 있었다고 여겨진다.

둘째, 외적 보상에 대한 적절한 대안이 좀 더 요구된다. 한 달에 한 그룹씩 선발하여 간식을, 열심히 참여한 10여명에게 보너스 점수 1점을 주는 보상방식에 대한 아쉬움이 있다. 물론 김세광교수는 회복적 가르침을 위한 평가로 중간고사 공모전이라는 전환적 시도를 했으며 이는 매우 흥미롭고 도전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식과 보너스점수와 같은 외적

1) praxis, 성찰 + 행동, 실천적 성찰, 성찰적 실천

2) 파울로 프레이리. 페даго지 P149

보상방식에 대해 아쉬운 점을 남기는 것은, 한국 학생들은 그동안 경쟁적인 교육구조 속에서 외적 보상에 의해 통제되고 조종되어 왔다고 여기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외적 보상은 학생들로부터 진정한 배움의 가치를 빼앗고 수동적 학습자로 남게 하는 역할을 해왔다. 회복적 가르침은 외적 보상에 의존해오던 기존의 교육방식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회복적 정의 패러다임은 자신의 행동이 처벌에 의해 통제되는 수동적인 태도가 아닌 잘못된 행동에 직면하고 자발적으로 책임지는 주도적 태도를 강조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학생들의 배움도 외적보상에 의해 통제되기 보다는, 배움의 즐거움이라는 내적 동기에 의해 학생 스스로가 주도적으로 배움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학생들에게 배움의 내적 동기를 강화될 수 있는 적극적인 대안이 모색되기를 바란다.

맺은 말

김세광 교수의 ‘대학생을 위한 회복적 정의 교과목 개발’은 21세기의 시대적 전환기에 살고 있는 대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회복적 정의 패러다임을 내용으로 관계적 배움의 방식을 통해 진행되었다고 본다. 아직 한 학기 과정이 다 마무리 되지 않은 상태여서 좀 더 관찰과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이러한 시도들이 대학과정에서 지속되기를 희망한다. 새로운 시도와 도전을 하는 김세광 교수에게 지지와 응원을 보낸다.